scu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DT BRAND POWER B
DT브랜드파워대상

ICSI KOREA INTERACTIVE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2010
인터넷 소통 대상

2017 NEWSLETTER SPRING+SUMMER VOL.36

제 14 회 신 일 스 승 상 시 상 식

2017년 5월 13일 학교법인신일학원 신일스승상위원회 차이콥스키홀

뒷줄 왼쪽부터 신일고 신병철 교장,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신일스승상 정원식 위원장, 조완규 위원, 신일중고 최경호 총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과 수상자들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새로운 내일과
또 다른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의 도전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CONTENT

2017 SPRING+SUMMER VOL.36

발 행 일 2017년 7월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발 행 인 이은주 총장
편집주간 김지연 교수
디 자 인 이향아 교수, 김은수 팀장
편집위원 박병석, 구희정, 한수미, 홍선관, 김미주, 임세희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53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SCU FOCUS

02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03 제14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04 개교기념식 및 추도예배
05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사이버교육 부문 대상 수상
06 2017년도 교원 워크숍

SCU TODAY

07 총장 에세이
08 SCU DREAM학당
10 특별한 재능 기부
12 신규학과 소개
15 군교육지원센터 밴드 소개
16 SCU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 활용법
17 도전! SCU 민간 자격증
18 제10회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지역 예선

SCU PEOPLE

19 명사 인터뷰 – 유진룡 前 장관
20 성공 스토리 – 서주석 박사
21 총학생회장 인터뷰
22 총동문회 정기총회
23 재학생 인터뷰 – 이용무 원우
24 해외 명사 – 지아니 볼핀 대표
26 스터디 모임
27 재학생 인터뷰 – 옹알스
28 2017년 보직 임명
30 재학생/졸업생 인터뷰 – 이인수 학우/홍승표 동문
31 재학생 인터뷰 – 조준호 학우·조현지 원우

SCU STORY

32 칼럼
34 상담심리학과·대학원 특강
36 SCU 베스트 동아리
38 춘계 MT 현장 스케치
40 업무협약
43 교수동정
45 뉴스

내 삶이 달라지는 첫 발걸음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월 25일, 2017학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신일고 신병철 교장, 박중규 교목실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이경숙 석좌교수, 군경상담학과 심용식 석좌교수, 국제예술대학교 강일모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정하 명예총장, 이은주 총장,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박영국 이사, 이규도 이사, 함용도 이사, 신일기업 김영동 감사, 신일학원 이원희 이사, 이형래 감사, 이철구 이사, 김창인 감사, 신일중고 최경호 총교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5일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입학식에는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본교 이은주 총장, 김정하 명예총장, 국제예술대학교 강일모 총장을 비롯한 여러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는 가족 혹은 동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학생이 많았다. 특히 부부 입학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상담심리학과 하종석 학우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어 전공과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강점이 더욱 돋보였다. 이은주 총장과 교수들은 입학생들에게 천냥금 화분을 전달하며 새 출발과 도전을 응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꽃말을 가진 천냥금 화분을 매년 입학식 때 신입생들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이 전통은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은주 총장은 축사를 통해 "도서 'GRIT'의 저자는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강조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간다면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삶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식 후에는 각 학과·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각 학과 교수진과 재학생들은 수업 방법과 학생회 활동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입학생들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약속했다.

참스승의 은혜를 기리다

제14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5월 13일,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제14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신일스승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이념을 실천하며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신일중·고등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 설립자인 故 이봉수 신일학원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매년 스승의 날을 기해 시상식이 거행된다.

시상식 축하 공연 중인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

제14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은 5월 13일, 본교 A동 4층 차이콥스키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서울인수초등학교 마병식, 지석초등학교 윤화선, 동구여자중학교 임강온, 대부중학교 김기옥, 서라벌고등학교 김태권, 영북고등학교 권기복, 동천학교 위영순 교사 등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가족, 학생, 그리고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본교 이은주 총장, 신일스승상 정원식 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신일스승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력 7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장 추천을 통해 1차 선정된다.

신일스승상 위원회는 교육 공헌도와 사도 실천성, 교육 파급성, 연구 실적 등 심사 기준과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제14회 신일스승상 수상자

분 야	학 교 명	성 명
초등학교 통합교육	서울인수초등학교(서울)	마병식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석초등학교(인천)	윤화선
중등학교 문화예술	동구여자중학교(서울)	임강온
중등학교 특기적성	대부중학교(경기)	김기옥
고등학교 진학지도	서라벌고등학교(서울)	김태권
고등학교 직업교육	영북고등학교(경기)	권기복
특수학교 진로교육	동천학교(서울)	위영순

뒷줄 왼쪽부터 신일중고 최경호 총교장,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신일스승상 조완규 위원, 신일스승상 정원식 위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정하 명예총장, 신일고 신병철 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과 수상자들

신일중고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처음을 되새기다

개교기념식 및 추도예배

신일중고·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개교기념식과 더불어 故 이봉수 이사장과 김신영 명예이사장의 추도예배가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신일고 이현우 행정실장, 졸업생 박용진 국회의원, 김정훈 교감, 이기우 명예교장, 신일기업 김영동 감사, 신일고 이원희 前 교감, 신병철 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신일고 총동문회 박용원 회장, 신일중고 최경호 총교장, 신일고 박중규 교목실장, 신일고 총동문회 박윤모 사무총장, 신일중 총동문회 김해만 회장, 신일중 이경옥 명예교장, 박희웅 교감, 신일고 박한결 교사와 신일중고·서울사이버대학교 장기근속상 수상 교직원들

신일중고 개교 51주년·서울사이버대 개교 17주년 기념식

5월 13일 오전 9시, 신일스타디움에서 신일중고 개교 51주년·서울사이버대학교 개교 1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신일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66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0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신일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재학생 일동은 물론,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신일고등학교 졸업생이자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인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일고등학교 신병철 교장은 기념사에서 "오래 전 故 이봉수 이사장님은 인재 육성을 위해 신일학원을 설립했다"며 "신일학원의 각 학교가 사회 곳곳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재들을 배출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으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각각 30년, 10년 근속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故 이봉수 이사장, 김신영 명예이사장 추도예배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야외 광장에서 신일학원 설립자 故 이봉수 이사장 17주기와 故 김신영 명예이사장의 8주기를 추모하는 추도 예배가 거행되었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등 신일학원 및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신일고등학교 교장인 신병철 장로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참석자 전원의 묵도와 찬송 후에는 협동교장인 이기우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신병철 장로는 성경봉독을, 학교법인 이사 박영국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을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참석자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신일학원의 설립 이념을 되새기게 했다.

이후 계명대 교수이자 유명 소프라노인 강혜정 교수의 조가와 최경호 신일중고 총교장의 인사말씀, 교목실장인 박중규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사이버교육 부문 대상 수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제16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사이버교육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5일 (사)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6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이 사이버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은 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나눔봉사·예술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수년간 해당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수상할 수 있다.

이상균 이사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방학 기간 집중학기 개설과 학생 맞춤 학기제 운영 등 선도적 사이버대학교 교육 시스템 구축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글로벌자격관리센터·심리상담센터·군교육지원센터 등 각 분야별 심화 교육센터를 개설해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고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서비스센터를 새로이 설치한 바 있다. 이상균 이사장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과, 학교를 믿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종합 평가 (2007년), 사이버대학 역량 평가 (2013년) 등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선도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온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제16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밑거름
2017년도 교원 워크숍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2017년도 교원 워크숍이 열렸다.

교원 워크숍에 참여한 본교 교수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언제나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올해 1월 구성된 4개 분과의 태스크포스팀(TFT)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이라는 교육부 정책과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교원 워크숍은 이러한 TFT의 과제 연구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원들은 유연화(학사)·전문화(교육)·인간화(소통)·국제화(브랜드) 등 총 4개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학생들이 개인적 여건과 어려운 환경에도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가교 역할을 할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 에덱스(edX), 코세라 등의 국제화 콘텐츠(MOOC)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러한 과제와 논의들의 실현 시기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본교 이은주 총장은 "오늘 논의한 것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며 "총체적인 안을 공유한 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워크숍 현장

토론 중인 교수진

꾸준한 독서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이 은 주**

겨울이 끝나가고 봄의 향기가 시작될 즈음이면 대학에서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신·편입생에서부터 재학생들까지 다시 사람들의 물결로 붐비고 바빠집니다. 이렇게 몇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무엇인가 달라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 로고송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신·편입생이 아마도 인생이 바람직하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보내는 하루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루를 보내겠지만 어떻게 보내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건강한 습관, 바람직한 습관 등 저는 습관이 모여 인생을 만들고 심지어는 운명을 바꾼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람마다 하루를 보내는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하루 중 어느 시간을 정해 30분 정도 독서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번 입학식 환영사에서 아침 독서 30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전공학부의 〈공부의 기술〉이라는 수업의 한 주차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의한 대목은 〈뇌를 활용한 스마트한 공부법〉이었습니다. 뇌를 활용한 공부법이란 적은 시간을 들여 뇌에 입력을 하더라도 잘 기억이 되어 시험을 보거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도록 잘 출력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부한 내용이 뇌에 잘 입력되고 저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텅 빈 공간에 채워 넣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어서 기억하려 할 때 그 정보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다면 이해도 빠르고 기억도 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뇌에 잘 입력되지 않고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과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배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뇌에 저장도 잘하게 됩니다. 또한 배운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하여 관리해야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법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독서는 읽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글로 써보거나 사유하고 성찰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독서 30분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같이 독서클럽을 만들어 시작한다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달라지며 운명조차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SCU DREAM 학당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웹사이트 혁신상 수상

동기부여는 물론 내게 맞는 학습법을 깨우치게 하는 책까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독서 습관, SCU DREAM 학당에서 시작된다.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엠블럼

DREAM 학당 웹사이트

DREAM 학당 유튜브 동영상

1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면?

습관의 중요성과 시간 관리

큰 차이는 결국 사소한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습관의 중요성과 시간 관리' 카테고리에서는 습관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몰랐던 기적의 6분에 대해 말하는 '미라클 모닝'과 '습관의 힘',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지속하는 힘', '혼자있는 시간의 힘' 등 일명 '힘' 시리즈와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했다' 등을 읽고 나면 절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낼 수 없을 것이다.

2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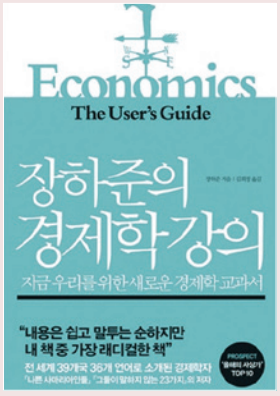
스마트한 공부 방법

학습의 관건은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우고 숨어 있는 재능을 발굴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1년 만에 기억력의 천재가 된 남자'와 열정적 끈기의 위력에 대해 말하는 '그릿',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보장하는 '맥킨지, 발표의 기술', '기적의 뇌 사용법',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독자를 매혹하는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등을 통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내는 사람들의 성공 레시피를 엿볼 수 있다.

3 독서를 의무에서 습관으로 길들이고 싶다면?

독서의 신비로 들어가기

아홉 권의 추천 도서로 구성된 카테고리 '독서의 신비로 들어가기'에는 '고전혁명'이나 '시민의 교양'같은 인문학 서적을 비롯해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리딩으로 리드하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공부할 권리'와 같이 토론과 공부를 즐기는 방법들을 담은 일종의 '공부 (독서) 가이드북'들이 포함돼 있다. '독서 8년'과 '책은 도끼다' 등은 책을 읽는 독서 그 자체의 즐거움을 200% 느끼게 해준다.



INFO

DREAM 학당 가는 법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간쯤에 등장하는 'DREAM 학당' 배너를 클릭하면 "꿈을 위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드림학당이 활짝 펼쳐진다.
드림학당으로 직행하고 싶다면,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주소창에 http://apply.iscu.ac.kr/01_info/14.asp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유튜브로 간 DREAM학당

하루에도 수십 번은 유튜브를 들락날락하며 정보를 탐색하는 유튜버들을 위해 드림학당이 유튜브를 찾았다.
검색창에서 'SCU드림학당'을 치면 유튜브에서도 언제든지 SCU드림학당에 접속할 수 있다.
www.youtube.com

4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갖고 싶다면?

사회를 보는 통찰력 기르기

'사회를 보는 통찰력 기르기'에 소개된 '대리사회'와 세계경제포럼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쓴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인구학자의 눈으로 본 '정해진 미래', 인간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사피엔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초상을 그린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암울한 사회상을 고발하는 '멋진 신세계'는 사회 속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망원경이자 현미경이다.

5 어려운 경제와 친해지고 싶다면?

시민을 위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시민을 위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진짜 경제의 민낯이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우리가 무심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경제 문제들과 성장 위주의 정책, 열정 노동 등을 가감 없이 분석한다. 책을 통해 경제 문외한에서 경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6 배움을 통해 충만해지고 싶다면?

삶의 방식과 행복 찾기
+ 마음의 양식을 위하여

굳이 달라이 라마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행복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삶의 방식과 행복찾기'의 추천 도서 2권 '단순하게 산다', '휘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는 심플라이프의 행복을 속삭인다.
'마음의 양식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소개된 '앵무새죽이기', '인간실격',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13권의 도서는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독서의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을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희망이 피어나는 가정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특수치료학과 임정선 교수와 상담심리대학원 재학생·졸업생들의 재능기부

특수치료학과 임정선 교수와 상담심리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재능기부로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다.

강북구 가족간범죄통합예방지원센터에서 회의 중인 임정선 교수와 상담심리대학원 재학생·졸업생들

강북구 가족간범죄통합예방지원센터 (이하 센터)에서는 상담사들이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전화로 상담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상담사는 관련 기관과 대학교, 대학원에서 나온 재능기부자들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특수치료학과 임정선 교수가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 함께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본교 상담심리대학원의 상담및임상심리전공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그 주인공들이다. 임정선 교수는 앞으로 특수치료학과 재학생들에게도 센터 견학이나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재능기부와 실제 상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희망이 피어나는 곳, 가족간범죄통합예방지원센터

흔히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의 처벌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나 경제적 지원 등도 중요하다.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후 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다. 상담이 시작되면 표면적인 사건 원인 외에 복합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즉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인 셈이다. 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각 관계기관과 전문 상담자를 연결해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 특수치료학과(신설)

전공개요	특수치료학과는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해결하기 위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트라우마치료, 예술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기법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학과입니다.
취득 자격증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총장 명의 수료증** 아동상담사 **민간자격증** 놀이치료사, 모래놀이치료사, 인지학습지도사, 미술치료사, 독서치료사, 피해상담사, 사이코/소시오드라마전문가
특징 및 강점	❶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신설 ❷ 임상 및 현장의 실제 사례가 강조된 교육과정 운영 ❸ 임상현장, 교육현장에서의 실습을 강화하고 체계화, 조직화 ❹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임정선 교수는 "가족간범죄통합예방지원센터는 강북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제도"라며 "피해자에게 상담에서 의료, 경제 지원까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북구 가족간범죄통합예방지원센터 최종효 센터장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혜택의 수혜자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상담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

처음 강북경찰서가 상담과 관련한 재능기부를 제안했을 때, 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임정선 교수는 경험이 풍부하고 재능 있는 졸업생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센터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어려운 상담을 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대학원 졸업생을 중심으로 상담사를 구성해야 했다.

김종님 원우는 "교수님께서 재능기부에 참여할 졸업생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해서 뽑으셨어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내다보셨던 거죠."라고 회상했다. 이렇게 선발된 졸업생들은 2년째 꾸준히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재학생들도 상담사로 참여해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센터가 개소한 이후, 가정폭력 재신고 가정의 비율은 이전에 비해 67.6%나 감소했다. 지난 3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북경찰서와 MOU를 체결했다.

임정선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이라며, "오히려 재능기부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봉사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졸업생들은 이곳에서 봉사하며 한층 성장하고 있었다. 집에서 센터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린다는 강태정 원우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 변화를 보는 기쁨 때문에라도 이 봉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며 밝게 웃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본교 상담심리대학원 졸업생들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본교 상담심리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

미래사회 정보 보호의 가치는 무한하다

정보보호학과

http://security.iscu.ac.kr

미래사회 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4차 산업사회에서는 사람·사물·장소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 컴퓨터가 장착돼 수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 만약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가 유출된다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국가 기반 시설과 공공 시설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보 보호 기술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제는 정보가 돈이다. 그런데 정보는 튼튼한 금고 속에 꼭꼭 숨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다닐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정보 보호 기술이다. 정보보호학과는 해킹·바이러스 전문가 과정,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 등 3개의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한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은 물론이고 이용자인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춰야 하므로 대학에서의 전문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과 과정

해킹·바이러스 전문가 과정

외부인이 무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 전문 기술 관련 과목들과 함께 해킹·바이러스 등의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목들로 이뤄져 있다.

사이버수사 전문가 과정

사이버상의 각종 범죄, 즉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개인 정보 유출, 불법 유해 사이트 수사,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에 필요한 사이버 정보 보안 기술, 법률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

각종 기관의 주요한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산업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목들로 구성되며 보안 정책 수립, 보안 대책의 실행 및 위험 분석,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도 포함된다.

관련 자격증

국제 자격증

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국가 자격증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민간 자격증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급·2급, 개인정보관리사, 해킹보안전문가 1급·2급·3급, 정보보안 과제사, 인터넷보안전문가 1급·2급

MINI INTERVIEW

노건태 학과장

Q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정보보호학과가 지닌 강점은?

기초 및 이론 연구에 강점을 가진 교수님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교육뿐 아니라 정보보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증 관련 교과목도 개설해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Q 정보보호 분야에서 대학원 진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보호 전공은 융합 학문이다. 수학, 컴퓨터, 법학 분야의 지식을 고루 습득해야 하며, 학문적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학원 진학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진학 상담 등을 통해 격려하고 있다.

Q 정보보호학과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동아리는 관심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간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수, 재학생, 졸업생들의 정보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융합 학문으로서의 건축

건축공간디자인학과

http://arch.iscu.ac.kr

공간을 다루는 건축은 공학과 예술, 인문 사회학이 결합된 융합 학문이다.

건축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미적 감각,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된다. 또한 공간을 다루는 일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산업의 하나이며 전문적이고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므로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건축공간디자인학과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인간과 공간, 전통과 미래 등에 대해 탐구하며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건축공간디자인학과에는 건축과 실내건축 등 두 가지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다. 이 두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건축(Architecture)·실내건축(Interior Design)·도시(Urban Planning)·공간마케팅(Space Marketing)에 대한 전문적 수업이 이뤄진다.

실무형 인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커리큘럼은 다양한 실용 기반의 실무 관련 수업을 통해 산업체의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건축기사·실내건축기사·도시계획기사와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 등의 시험 대비를 겸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이 준비돼 있고 각 스튜디오를 통해 실제 디자인과 모형, 패널 작업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수업도 연계되어 있다.

교과 과정

건축과 실내건축 두 가지 트랙 중심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건축학개론, 실내건축디자인개론, 인간공학, 건축사 등을 기본으로 VMD(Visual Merchandising), CAD, 마케팅원론, 가구 및 조명 디자인, 문화공간경영, 전시기획의 이해, 공공환경디자인 등 학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조한 교과목 구성이 특징이다. 디자인스튜디오(3학년), 졸업작품스튜디오(4학년)는 학생들과의 오프라인 수업을 일부 포함한다. 스페이스마케팅, 스페이스디벨롭먼트, 스페이스디벨롭먼트사례연구 등의 과목을 통해 학문적, 실무적 역량을 키운다.

관련 자격증

전문 자격증

건축사, 건축구조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자격증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전산응용설계(CAD),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콘크리트기사

MINI INTERVIEW

홍선관 학과장

Q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과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

재학생 일부는 건축분야에 있지만 보다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고, 일부는 다른 분야에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열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대학의 장점은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건축물과 유명 건축가들과의 교감을 통해 보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Q 교수와 직접 대면하거나 실습하는 과정도 있나?

건축디자인스튜디오, 실내건축디자인스튜디오(3학년), 졸업작품스튜디오(4학년)는 오프라인에서 교수와 대면 학습으로 진행된다. 필드트립과 건축 전시회 등 건축 수업에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Q 학생들의 건축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건축기사·실내건축기사·도시계획기사와 한국실내건축가협회의 실내디자이너자격시험 자격증을 위한 다양한 과목(건축계획, 건축법, 시공 및 재료학, 환경 계획 및 설비, 건축사, 건축구조 등)의 라인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목적이어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http://sls.iscu.ac.kr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여러 전공을 탐색하며 경험해볼 수 있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곧 도래할 미래는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며 정보가 무수히 넘쳐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인재는 단 하나의 전문적 기술을 구사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생각의 가지를 여러 갈래로 뻗을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다.

자유전공학부는 하나의 전공으로는 미래 사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다방면의 지식을 쌓도록 유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입학 후 3학기 동안 다양한 과목을 개방적으로 공부하며 4학기에 비로소 자신의 전공학과를 선택한다.

필수과목은 '전공탐색세미나'와 '공부의 기술' 두 과목뿐이다. 전공탐색세미나는 전체 학과의 학문적 특성과 교육과정 구성, 진로 등의 내용을 소개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부의 기술 수업에서는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인 시간 관리 방법, 리포트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글쓰기 기술, 학습 자료 활용 방법 등을 배운다. 전문적 지식은 아니더라도 공부를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태도와 역량을 만들어 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과정

트랙 미선택 (필수 2 과목 + 권장과목 자유선택)
3학기 동안 필수과목인 '전공탐색세미나'와 '공부의 기술' 두 과목만 필수적으로 수강하고 나머지 학점은 교양과목이나 본교에 개설된 각 학과 전공기초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 수강해 이수 요건인 8과목 이상을 충족하면 '자유전공이수증'이 발급된다. 자격증은 선택적으로 관련 과목 수강 후 취득하면 된다.

트랙 선택 (필수 2과목 + 트랙별 4과목 + 자격증 대비 2과목)
필수과목 2개와 인문·사회, 지식·문화융합, 글로벌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트랙 중 선택한 트랙의 권장과목 4개, 그리고 자격증 대비 과목 2개를 수강한다. 트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료증에 선택한 트랙명이 병기된다.

관련 자격증

인문·사회 관련 독서지도사
지식·문화융합 지식문화코디네이터
글로벌리더십 공적개발원조(ODA) 일반·심화 자격증, 세계시민교육 강사 자격증

MINI INTERVIEW

김용희 학부장

Q '자유전공학부'는 10명 중 3명이 자신의 대학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택하는 국내 현실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학부의 필수과목인 '전공탐색세미나'를 통해 각 학부에 개설된 학과(전공)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학습할 수 있고, 각 학과(전공)의 개설목적과 졸업 후 진로 등을 배울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융합학문이나 인문학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이며, 특히 매월 실시되는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Q '공부의 기술' 과목을 만든 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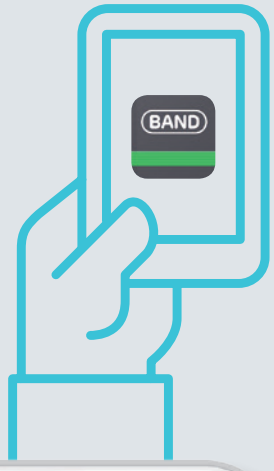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우수한 선배들의 학습 수기를 통해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책읽기와 글쓰기, 공부 비결, 대학의 기본 목적 등을 이해해 성숙된 대학생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Q 어떤 사람들이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면 좋을까?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학습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공 선택을 망설이는 학생들은 전공탐색 세미나와 공부의 기술을 먼저 수강한 후 전공 학과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

군교육 정보, 밴드에 다 있다

본교 군교육지원센터는 지역별 밴드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는 2008년에 설립돼 10여 년 동안 국내 유일의 군 관련 상담학과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군경상담학과와 더불어 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군인 재학생이 많다. 군교육지원센터는 군인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학생이 놓칠 수 있는 학교 정보를 알리고, 흥미롭고 유익한 군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그룹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 있다.
동일 지역 학생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보 공유를 돕기 위해 만든 군교육지원센터의 밴드는 현재 10여 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밴드 찾기' 검색창에 아래 밴드를 입력해 보세요.

- SCU양구1
- SCU양구2
- SCU화천1
- SCU화천2
- SCU화천3
- SCU원주/홍천
- SCU철원/횡성
- SCU춘천
- SCU인제1
- SCU인제2

이럴 때 활용하세요

1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
군교육지원센터의 밴드는 다양한 학사 정보를 공유한다. 학교 소식과 시험 일정 및 응시 안내 등을 공지하므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학과 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정보를 콕콕 찍어 전해준다.

2 군 관련 재미있는 뉴스가 없을까?
군교육지원센터의 밴드는 군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과 뉴스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이기도 하다. 콘텐츠를 통해 다방면으로 군 관련 지식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학생들의 반응도 꽤 좋다.

3 함께 공부할 친구를 찾고 싶다면?
학생들은 현재 지역별로 개설된 밴드를 네트워크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모임을 기획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학습 관련 팁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SCU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 활용법

나는 이렇게 **취업**에 **성공**했다

SCU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한 김용강·이수연 학우를 만났다. 이들이 소개하는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의 이모저모.

❶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❷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❸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점은? ❹ 아쉬웠던 점이나, 앞으로 바라는 점은? ❺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김용강
국제무역물류학과 졸업

1 현재 국제 운송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다.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작년 11월쯤 듣고 올해 1월 취업했다.

2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면접 스킬' 등의 실용적인 취업 교육을 다룬다. 면접장에서 앉는 방법, 말하는 방법 등도 포함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를 숙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면접관에게 풍기는 인상은 매우 다르다. 또한 개인마다 필요한 전반적인 취업 정보, 예를 들면 관련 회사의 구직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해준다.

3 직업 심리검사와 커리어 코칭 상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장점은 직장인 학생이 많다는 것인데, 같이 수업을 듣던 직장인 학생들에게 얻은 정보도 큰 도움이 됐다. 실무 경험자의 조언과 정보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4 학생 각자의 연령대나 전공이 다양해 맞춤형 코칭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성과는 학생의 적극성에 달렸다. 나는 담당 선생님에게 정말 자주 연락했다. 메일로 이력서를 보내고 수시로 조언을 들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담당 선생님이 추천해준 곳이다.

5 굉장히 바쁘다. 만화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다니는 회사가 딱 우리 회사의 모습이다.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내가 일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 앞으로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다.

이수연
사회복지전공 졸업

1 현재 복지 관련 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졸업을 앞둔 학기에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알게 돼 적극적으로 지원해 배웠다.

2 담당 선생님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일대일로 꼼꼼하게 첨삭해준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담당 선생님이 첨삭해줬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커리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도 해준다.

3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모의 면접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각각 면접관과 면접자 역할을 해보면서 독특한 경험을 했다. 면접관 역할을 해보니 면접 시 면접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됐다. 또한 실제 면접할 때 긴장도 덜했던 것 같다.

4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프로그램을 듣고 취업한 학생들이 다시 후배들의 수업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여러 조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적극 참여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5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차근차근 준비해 지금보다 더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다.

도전! SCU 민간 자격증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자격관리센터는 '리더십지도사'와 '피아노지도자' 과정 등 2가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리더십지도사

주관 군경상담학과 **취득 대상** 본교 재학생 (전공 무관)
※2017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 **취득 요건** 2017학년도 본교 개설 교육과정 기준

구분	1학기	하계집중학기	2학기	동계집중학기
필수과목 (5과목)	심리학개론		심리학개론	
	조직과 리더십			
			긍정심리학	
	조직과 인간관계			
	인적자원개발론			

필수 5과목, 총 5과목 이수, 성적 요건 : 평균 70점 이상

'리더십지도사' 과정은 리더십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다양한 조직에서 리더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자격 발급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교 민간 자격증이므로 타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재학 중 과목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했다면 부족한 과목을 시간제로 이수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과목을 이수한 후 '민간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보내면 학위 수여식 시기에 맞춰 발송해 준다.

피아노지도자

주관 음악학과 **취득 대상** 본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자
*시간제 이수 불가 ※2017년 8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 **취득 요건** 2017학년도 본교 개설 교육과정 기준

구분	1학기	2학기
필수과목(2과목)	음악교육론	음악교수학습방법
선택과목(4과목)	피아노 실기1	피아노 실기1
		피아노 실기2
	피아노 실기3	피아노 실기4
	피아노 실기5	피아노 실기6
	피아노 실기7	피아노 실기8

필수 2과목, 선택 4과목, 총 6과목 이수, 성적 요건 없음

'피아노지도자' 과정은 음악 전공자가 갖춰야 할 음악적 소양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실기 능력의 향상을 통해 연주력과 교육 능력을 겸비한 인재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본 자격증은 실기와 이론을 망라한 피아노 교육 능력을 갖춘 일류 인재임을 증명한다. 피아노지도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 경험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 중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하지만 편입학 학점은 인정된다.

※ 개설 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강 전 확인해야 한다.
※ 본인의 자격 과정 수강 상태는 [학생포털시스템]–[학사정보]–[자격실습]–[나의자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도유망한 음악 영재들의 국제 무대 등용문

제10회 YOUNG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지역 예선

제10회 YOUNG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피아노부문 지역 예선이 4월 17일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본교 음악학과 윤소영 교수, 신지연 교수, 콩쿨 참가자 김강현 군, 선율 군, 차이콥스키 음악원 유리 슬레사레프(Uri Slesarev) 교수, 콩쿨 참가자 김본휘 군, 구나연 양, 김선아 양, 본교 음악학과 이경숙 석좌교수, 나정혜 교수

1992년, 세계 3대 콩쿨 중 하나인 차이코프스키 콩쿨을 모태로 시작된 YOUNG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은 만 17세 이하 음악 영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피아니스트 랑랑도 바로 YOUNG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피아노 부문 우승자 출신이다. 이 대회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카자흐 국립예술대학교가 주최한다.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지역 예선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는 차이콥스키 음악원과 MOU를 맺으면서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4월 17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린 지역 예선에서는 차이콥스키 음악원의 유리 슬레사레프(Uri Slesarev) 교수와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이경숙 석좌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어린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기량을 지켜봤다.

제10회 YOUNG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지역 예선에 참가한 학생은 구나연(14)·김본휘(15)·김강현(13)·김선아(16)·선율(16) 등 총 다섯 명. 바흐에서부터 차이콥스키, 베토벤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과제곡을 소화해낸 이들 다섯 명은 모두 지역 예선을 무사히 통과해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1차 예선과 본선 대회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경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유리 슬레사레프 교수로부터 일대일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의 기회를 얻었다.

예선 이후 차이콥스키 음악원 유리 슬레사레프(Uri Slesarev) 교수에게 일대일 레슨을 받고 있는 콩쿨 참가자들

국민대학교 유진룡 석좌교수

이순(耳順)의 공부와 불치하문(不恥下問)의 삶

인생 자체가 커다란 공부라는 문화체육부 유진룡 前 장관만큼 학문의 본질을 제대로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본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을 졸업한 유진룡 前 장관

목표 아닌 목적으로서의 공부의 즐거움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국민대학교 석좌교수로 돌아온 유진룡 前 장관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교수도 해보고 학생도 해봤는데, 교수보다 학생으로 사는 게 저에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가 소모적이라면 후자는 생산적이거든요."

유진룡 前 장관은 2012년 전기에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입학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과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이순(耳順) 사이에서, 유진룡 前 장관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해질수록 자신이 아는 바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경제학과 행정학 지식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해석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자신이 몸담아온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산업 등과 관련된 행정 분야를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택했다.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미 행정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던 터라 학위나 자격증 취득보다 흥미 있는 과목을 깊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늦깎이 공부'를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일찍이 경험한 그 어떤 대학과 대학원, 온라인 교육기관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시스템으로 그를 매료시켰다. 특히 공부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비교 불가능한 장점이었다.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 공부 덕택에, 유 前 장관은 2017년도에 뛰어난 성적으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나이가 들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보니 젊어서 의무감으로 했던 공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재미 있었습니다. 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넓고 깊은 공부를 한다면 배움의 과정이 한결 즐거워질 겁니다."

"모든 과목이 다 좋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물론 빈곤과 불평등, 다문화, 노인문제, 일과 가족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생 서주석 박사

관심 분야가 확장되는 즐거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거쳐 최근에는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5년,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또 다른 분야의 지식을 쌓았다.

성적 최우수 총장상을 받은 서주석 박사(문화예술경영학과 졸업)

최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서주석 박사는 평생 통일안보, 한·미 외교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왔다. 그런 그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서 박사는 "2006년 뉴욕에서 우연히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크게 감동한 후 아내와 함께 공연·콘서트·그림을 보러 다닌 것이 관심의 시작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한 그는 전공인 영문학은 물론 문화 교양·농학·관광학 등을 두루 섭렵했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 2015년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관심과 노력은 열매를 맺는다

서주석 박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는 공연·미술·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데다 훌륭한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교수진까지 갖춰 배움에 큰 자양분이 됐다."고 말한다. 문화예술경영학과 학과장 이의신 교수에게 들었던 공연 기획과 제작 운영, 교양학부 전원경 교수의 서양미술사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수업이었다.

"실용적인 강의 내용은 문화 전반의 관심을 이끌었고 취향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수업을 들을수록 가까운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였죠."

서 박사는 수업 중 교수가 언급하는 책은 무조건 구입해 곁에 뒀다. 국내외 학술지와 관련 자료를 전부 훑는 것은 기본이었다. 온라인 강의는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 들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서 박사는 학기 내내 성적이 우수했고, 졸업 시 성적 최우수 총장상까지 받았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관심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다

서주석 박사는 교우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끈끈한 정을 나눴고 학교 포털에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겼다. 문화예술경영학 전공자라는 명분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음악 동호회 회장까지 맡았다. 시골집에서 동호회와 마을 사람들의 합동 공연도 기획했다. 나아가 국방부에 문화 예술의 관심을 전파하는 가교 역할도 꿈꾸는 서 박사. 올해 결성된 문화예술경영학과 동문회에서도 서주석 박사는 활력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다.

사회복지전공 임양희 학우

변화를 이끌고 나눔을 실천하는 17대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임양희 학우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17대 총학생회장이 되었다. 우수한 시스템은 물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문화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본교 제17대 총학생회장 사회복지전공 임양희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 17대 총학생회장 임양희 학우는 "학습을 지원하고 권장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고 모든 일에 먼저 앞장서 봉사하겠다."며 "무엇보다 학우들 개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17대 총학생회로서 변화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학우들을 대표해 봉사하고 선대의 전통을 이어 나가,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복지 문화 사업의 새로운 프레임을 향한 배움

임양희 학우는 2014년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했다. 현재 수공예공방을 운영하며, 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대안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임양희 학우는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 문화를 개발, 개인의 계발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문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입학 동기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습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수한 학습 콘텐츠와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나 자신을 계발하고자 합니다. 1학년부터 지금까지 성적장학금을 꾸준히 받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같은 생각과 같은 꿈에 도전하는 학우들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는 졸업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복지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소중한 소통의 창구다

임양희 학우는 '시작이 반,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책임진다'는 메시지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 메시지를 학우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들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문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움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위해 문을 두드릴 때 소중한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17대 총학생회가 존재하며,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학우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해 **창의적 협력을 다진 SCU 총동문회**

지난해 학교 발전을 위한 정기 회동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총동문회와 학교 관계자들이 만났다.

정오동 총동문회장

Q 총동문회장으로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다.

그렇다. SCU는 2회에 걸쳐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다. 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동문회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Q 학교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홍보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총동문회가 활성화돼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Q 장학금을 지급하는 총동문회장상의 제안 취지가 무엇인가?

2015년 6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비로소 실천하게 돼 기쁘다.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하반기, 상반기 졸업식 단상에 섰는데, 총동문회장상이 없는 점이 늘 아쉬웠다. 직접 기부 형태로 모교 발전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동문에게 보탬의 손길을 더할 수 있다면 동문회장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6일 본교 A동 3층 회의실에서 총동문회와 학교 관계자들이 만났다. 이은주 총장과 정오동 총동문회장 등 8명의 참석자들은 총동문회의 활동 지원과 총동문회 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오동 총동문회장은 동문회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학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주 총장은 입학생의 20% 정도가 재학생 추천 입학인 만큼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동문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밴드를 이용한 동문회 활성화와 총학생회비 납부 방식 변경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은주 총장은 "총동문회가 재학생회와 힘을 합쳐 학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총동문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오동 총동문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을 갖고 학업에 임하는 동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총동문회장상'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동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자 파트너임을 확인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학생처 유성인 계장, 총동문회 임광식 사무총장, 전광호 학생처장, 이은주 총장, 총동문회 정오동 회장, 조용규 고문, 홍금표 감사, 원봉덕 수석부회장

상담심리대학원 이용무 원우

저와 두 딸은 자랑스러운 서사인입니다

상담심리대학원 이용무 원우는 군 내부 다문화 전문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그의 꿈을 들어봤다.

상담심리대학원 이용무 원우와 아동복지전공 이지혜·이슬기 학우

상담심리대학원 이용무 원우는 군인으로 복무하면서도 늘 학업을 놓지 않은, 열성적인 만학도였다. 야간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사람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어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문을 두드렸고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다시 본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상담심리를 공부하며 병영 전문 상담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군대 내에서 활동 중인 병영 전문 상담관과 나눈 의견, 군 생활 경험, 학부와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대원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는 전문 상담관이 되고 싶습니다."

두 딸에게 아동복지전공 추천

이용무 원우의 두 딸 슬기·지혜 학우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이다. 두 학우는 올해 아동복지전공 3학년에 편입했다.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무뚝뚝한 모습 대신 밝은 웃음을 보이게 된 아버지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용무 원우는 두 딸의 사회성과 직업 능력을 고려해 직접 아동복지전공을 추천하기도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프라인 모임도 활발히 이뤄집니다. 제가 속한 전남 지역 모임 중 목포 지역(전남 서남부)은 10명 내외의 학우가 아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친목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사인이라는 자부심이 무척 강합니다."

이용무 원우는 두 딸 슬기·지혜 학우가 호남 지역 정보기술(IT) 국장으로 활동해 더 뿌듯하다고 말한다. 그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류하는 채널을 만들어 서사인으로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지금이 미래를 만든다

"공부를 할수록 늦었다는 생각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생 철학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이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 가족을,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자 합니다. 그들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오늘도 행복감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이용무 원우와 슬기·지혜 두 학우의 밝은 모습에서 언제나 배우고 익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아니 볼핀 (Gianni Volpin)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한국사무소 대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 ICRC에 몸 담은 지아니 볼핀 한국사무소 대표를 만났다.

어떤 계기로 ICRC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제가 한창 사회생활에 여념이 없던 1990년대 초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르완다와 유고 내전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패션업계에 종사했던 저는 뭔가 새로운 일, 특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도적 지원 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여러 번 지원했습니다만 패션 기업에서 일한 배경 때문인지 계속 낙방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지원한 끝에 합격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를 채용한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고 하더군요.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셀 수 없이 많죠. 첫 부임지인 르완다에서 교도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좁은 감옥에 정원 이상의 재소자들이 수감돼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란 중에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친척을 찾아주는 상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의 무력 분쟁 시 접경 마을에 남겨진 실향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우리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과 몇 개를 주었는데 그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표로 계신 한국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ICRC 한국사무소의 역사는 6·25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네바협약에 의거,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주로 전쟁 포로소를 방문해 남북 양측에 인도적 처우를 하도록 권고했고 1954년에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CRC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호주·한국에 이르기까지 선진 산업국에도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소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이들 국가의 정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리아·예멘·나이지리아 등 글로벌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지원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ICRC는 북한사무소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활동은 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사무소는 2002년 개소했는데 주로 현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수족을 제작, 보급하는 재활센터의 운영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0~1000병상 규모의 도립병원의 건립과 의료 기술 전수도 해왔고 최근에는 개성의 일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과 환경위생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부임 전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 차례 방북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ICRC도 직원이나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이러닝 과정이라기보다 면대면 교육이 포함된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 코스가 많습니다. 제네바본부의 연수부서에 이러닝 제작팀이 있어서 내·외부 강사를 섭외해 직급별·분야별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과정이 있고 취약 계층 보호 업무 등의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 이러닝은 중요한 연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교를 방문하신 소감과 서울사이버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년에 특강이 있어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현대적 시설과 첨단 장비가 놀랍습니다.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전시물도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국내 정치나 현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야를 돌려 세계를 볼 수 있는 넓은 마음(broad mind)을 가져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기여할 부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본교를 방문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지아니 볼핀(Gianni Volpin) 대표

가족상담학과 인덕원 스터디 모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의 힘

서울사이버대학교 경기 제1캠퍼스. 함께해서 더 즐겁고 힘이 되는 시간, 인덕원 스터디 모임 학생들을 만나고 왔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족상담학과 백경임·임지니·김인실·강인숙·이주예·정순옥 학우

"프로이트하고, 칼 융, 그리고 매슬로였지? 그 사람들의 이론을 다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인덕원 스터디 모임. 이들이 모여 함께 읽고 있는 책은 '심리치료 이론과 가족치료'이다. 이들은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정해 책을 읽고 의견을 공유한다. 물론,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는 게 이들의 일상이다.

시간이 힘이 되다

김요완 교수를 구심점으로 결성된 가족상담학과 인덕원 스터디 모임에는 경기 남부와 서울 동부에 살거나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참여한다.

입학 후 계속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온 가족상담학과 3학년 이주예 학과회장은 "책 내용 분석뿐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담해 주는 이 시간 자체가 상담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책 내용에 관한 토론을 마친 후 항상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주예 학과회장은 "아주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족상담학과 학생들이 모여 함께 상담소를 만들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록 그 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겐 그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스터디 모임이 더없이 소중할 뿐이다.

가족상담학과는 앞으로 지역의 스터디 모임이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덕원 스터디 모임의 학우들은 특히 경기 제1캠퍼스가 있어 장소 걱정 없이 모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했다. 앞으로도 열정 있는 학우들이 함께 모여 배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옹알스

더 나은 공연 전문가로 거듭나는 시간

넌버벌 퍼포먼스 코미디팀 옹알스의 조수원·채경선·최진영 학우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새내기 대학생이 됐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신나요. 샤워하며 듣고 설거지하며 들어요. 모르는 건 언제든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새 옹알스의 지적 충만감이 하늘을 찌르네요. 하하~"

캠퍼스가 너무 근사해 왠지 뿌듯했고 구내식당 밥도 너무 맛있다고 자랑하는 새내기 대학생 옹알스. 옹알스는 국내 코미디언 최초로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에서 공연했고,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지금은 브라질·캐나다·인도 등에서 활약 중이다.

이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지난해 옹알스의 멤버인 조준우 학우가 본교 사회복지전공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켜본 것도 계기가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PC·스마트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은 국내외 공연 일정이 빠듯한 옹알스에게 최적의 환경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옹알스의 꿈을 응원해요

"콘텐츠기획·제작학과 학생 중 성공 사례가 아직 없다는 말을 듣고 옹알스가 그 업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가 생겼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잘 배우고 수준 높은 공연과 예술 경영을 통해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싶어요."

사회복지전공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와 웃음 치료를 접목한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는 조준우 학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공연을 펼치겠다는 조수원·채경선·최진영 학우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좋은 스승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다.

왼쪽부터 사회복지전공 조준우 학우,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조수원·최진영·채경선 학우

2017년 보직 임명

평생교육원 원장 이문숙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04년도에 국내 사이버대학 사상 최초로 설립됐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의 정신으로 세상을 향한 첫 길을 연 데 이어 교수진과 콘텐츠에서도 최고를 지향한다. 지금까지 교육의 가치와 대학의 사회 기여를 고민한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교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인정과정〉, 〈자격대비 과정(민간자격증)〉, 〈자기계발 과정〉, 〈인문취미교양 과정〉, 〈기관 맞춤 교육 과정〉, 〈SCU 사회공헌 과정〉 등으로 나뉜다. 본교 8대 평생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이문숙 교수는 초대 평생교육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문숙 교수는 "재학생들에게 학과 수업과 관련됐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도움 되는 자격증과 기초 과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재학생뿐 아니라 본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활동을 좀 더 알리고 더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총장
정영애 교수

부총장보
박병석 교수

입학처 부처장
김현아 교수

부총장
이향아 교수

입학처 부처장
전호진 교수

군교육지원처 처장
이정원 교수

도서관 관장·사회과학학부 학부장 김선정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도서관은 1만 2천여 권의 전자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과 반납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각종 논문, 학술지 등 국내 학술자료를 열람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신간 요약본을 제공해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독서클럽 (SCU Book's WAVE)과 'SCU 추천 필독 도서 50종'을 소개하는 영상 서비스 'SCU Dream 학당'을 들 수 있다. 김선정 도서관장은 "책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산학협력단 단장 박기훈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1년 산학협력단을 설립, 대외 산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학술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사업 지원에서 우수한 실적을 자랑한다. 또한 심리상담학부, 경상학부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샌버나디노(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가 함께 계획하는 워크숍 및 공동강의 개발 등 연구 교육 ODA 사업 수주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박기훈 산학협력단 단장은 "교원의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충실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협력사업, 글로벌 ODA 사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및 관련 학과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일류 대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출판부 부장
김지연 교수

사회복지학부 학부장
박형원 교수

경상학부 학부장
이완형 교수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오창환 교수

보건행정학과 학과장
허재헌 교수

음악학과 학과장
윤소영 교수

정보보호학과 학과장
노건태 교수

입학처 대외협력처장
구국모 처장

이인수 '인스클래식' 대표

21세기 문화예술경영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사업 기획사이자 현악기 유통회사인 '인스클래식'의 이인수 대표. 그는 2003년 현악기 판매와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아니마 스트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했다. 2014년부터는 지금의 '인스클래식'으로 단장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스클래식'은 클래식 공연 기획, 악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보호에 기부하는 '에코 뚜띠 (ECO-TUTTI)', 실내악 연습실을 기부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을 모아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회 등 사회공헌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생으로 새로운 나래를 펼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수진, 현장 업무가 가능한 특성화된 콘텐츠, 문화예술단체와 MOU를 통한 인턴십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갖췄습니다."

이 대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직종의 학우들이 문화예술경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이어졌다."며, "더욱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홍승표 시니어연구회 회장

우리 연구회가 더 나은 노인복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을 마친 홍승표 원우는 현재 시니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시니어연구회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노년학 스터디 모임이다.

"사회복지학은 공부할수록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에 가깝고 그래서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중 노인복지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든다'는 공통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아직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2015년에 결성된 시니어연구회를 통해 그는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 세대 차 견해를 교류하는 장, 미래 나의 이야기'인 노년학에 다가선다. 시니어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연구 내용을 올린다. 1년에 세 번은 다 같이 모여 복지센터에서 노인 체험을 하거나 그동안 발표했던 주제를 총망라하는 자리를 갖는다. 조만간 시니어연구회 이름으로 소논문과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다.

상담심리학과 조준호 학우 & 상담심리대학원 조현지 원우

우리는 부녀지간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입니다

상담심리대학원 조현지 원우

상담심리학과 조준호 학우

끝없는 배움터, 활기찬 인생의 동반자

2016년 2월은 조준호 학우가 평생 기억할 날이다. 딸 조현지 원우의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입학식에서 자신의 두 번째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해 9월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이 됐다.

"강의와 시험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처음에는 딸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은 스스로 하죠. 저는 새벽잠이 많은 편인데, 월요일 새벽 6시만 되면 눈이 절로 떠져요. 업데이트된 강의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서울메트로에서 30여 년 동안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조준호 학우는 긍정의 힘, 노동과 자아실현 등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사이에 아침형 인간으로 변했다. 학사과정이 끝나면 석사과정에 도전할 것이다. "80대 때 무엇을 하겠느냐는 이시형 박사의 질문이 늘 가슴에 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웃음치료와 글쓰기 등을 접목한, 저만의 노인 복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밝히는 교수진과 시스템

조준호 학우의 딸인 조현지 원우는 본교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하면서 7년간 다녔던 회사를 나왔다. 그는 회사를 다니며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동안 상담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길이 상담심리에 있고 모든 시간을 쏟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자,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조현지 원우는 상담심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소 10년의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계획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조현지 원우는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가족 상담을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아동 상담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대화가 부족한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원인과 배경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그리고 이 고민은 신혼부부 상담까지 이어졌다. "사람과 삶은 마치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돼 있어요. 저는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신혼부부 상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라!

사회과학학부 학부장 김선정 교수

나를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는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내가 완전함이듯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 완전함의 깊은 뜻을 우리 인간은 쉽게 알 길이 없다. 여기서 인간에게 성서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는 여정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일상이 마음을 먹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잘 알고 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잡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욕심내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나'다.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순간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집착을 끊고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으로 알고 욕망을 갈망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그래서 자꾸만 빚어낸다. 손에 잡히는 신, 귀에 들리는 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다. 그러니 법당에 앉아 있는 불상이 우상이 아니다. 내가 바로 우상이다. 신의 뜻을 가리는 '나의 뜻'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이다. 나를 믿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집착하는 나' '욕망을 갈망하는 나'를 찾았다. 그렇다면 내가 집착을 끊고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아니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집착의 '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순간 인간에게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의 물음이 생겨난다.

나는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 십자가가 뭘까.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런 십자가가 숨어 있다. 내가 꺾지 못하는 나의 고집, 나의 잣대, 나의 욕망이 바로 내가 짊어질 십자가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고집이 무너지고, 잣대가 무너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싫다. 죽도록 싫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쉽지 않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일이 쉽지 않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다. 하나 되는 순간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요, 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인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종교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인지 오래다. 세속적인 가치가 종교적인 가치를 가린다. 그래서 욕망을 해소하면 욕망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다. 욕망이 생길 때마다 욕망을 충족시키지 말고, 욕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욕망을 지켜보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나의 욕망을 보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절망적으로 사유했던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와는 달리 니체(Nietzsche, F. W)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삶의 원동력으로 사유하며 믿지 말고 잘 돌보라고 한다. '나'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대학

입학처 구국모 대외협력처장

가상공간이 가져온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인적자원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다.
미래의 인재를 책임지는 시대,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맹모삼천지교 (孟母三遷之敎)란 말이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이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교육은 이 말에 꼭 들어맞았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사는 물론이고 이민도 고려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이다. 소위 '8학군', '명문학군'이라 불리는 곳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 환경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 교육을 위해 시간 들여, 돈 들여 이사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최고의 스승에게,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변화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2012년 미국에서 온라인 동영상 공개강좌인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무크를 통해 전 세계인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같은 명문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대학교가 그 역할을 해왔다. 출퇴근 길 지하철 안에서, 내 방에서 자유롭게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서울사이버대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MOU를 맺어 국내에 있는 본교 재학생이 해외의 실력 있는 교수진에게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교민들도 국내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현재 20억 명 인터넷 인구가 2020년에는 70억 명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은 일상적인 활동의 공간이 된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쌍방향 수업을 위해 최근 무크(MOOC)와 함께 수업 중 토론이 가능한 방식에 대해 정보 공유를 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는 모바일 보급률과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에 온라인대학 최초로 모바일 강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로 출석인정이 되는 것은 물론, 교과목 비율 98.5%를 달성하면서 거의 모든 과목을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2학기부터는 모바일 강의에도 '속도 조절' 기능이 추가돼 편리함을 더했다. 직장인이 많은 온라인대학 특성상, 출퇴근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앨빈 토플러의 비유처럼 시대 변화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흐르는 '물결'과 같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콘텐츠와 수업 방식은 시대와 함께 물결처럼 흐르고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게 당연지사다. 우리 대학교가 지난해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학생들에게 주는 대학교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차별화된 강의 콘텐츠,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이 그러한 것들이다. 어떻게 바뀌고 변화할지는 먼저 실행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동의대학교 권승 교수

본교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

본교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

본교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

새로운 내일을 여는 길라잡이
상담심리학과·대학원 특강

상담심리학과와 대학원이 대학원 및 자격증 준비를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재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진로를 꿈 꿀 수 있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매년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 및 자격증 준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본교 상담심리대학원과 연계하여 4월 22일 오후 1시에서 5시 30분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4층 차이콥스키홀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상담심리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200여 명의 참석자가 차이콥스키홀을 가득 채웠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 및 임상전공 주관으로 前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인 권승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모시고 '청소년 상담사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권승 교수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 분야의 비전과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자격시험 관련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222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202개)를 총괄하면서 다양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소개했다.

'청소년 상담사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 중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前 이사장 권승 동의대학교 교수

상담심리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본교 상담심리학과 구희정 교수가 상담심리 관련 대학원과 진학 준비를 소개했다. 상담과 임상 전공의 다양한 대학원 소개와 대학원 진학 현황, 선배들의 경험 그리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 본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 및 임상 전공 주임교수인 채정민 교수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을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심리대학원의 강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교육 과정, 대학원 모집 요강, 대학원 학습 가이드 등을 안내했다. 채 교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국내 전체 심리학과 중 최다 상담심리 '전임 교수진'으로 구성됐다."며 "풍부한 교육 경험과 현장 경험, 연구 능력을 갖춘 교수진에 의해 통합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특성화된 교육과정, 세계적 석학의 강의와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실무와 현장 중심의 수업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 전국 5개 지역의 직영 심리상담센터와 전국적인 기관 연계를 통한 실습 및 수련, 입학에서 자격증 취득까지 맞춤형 진로 지도 등의 강점을 설명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은 특히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강의 콘텐츠를 자랑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러닝 시스템 'SCU 러닝 웨이브(SCU Learning WAVE)'는 국제대회 'IMS 러닝 임팩트 어워드(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은상을 받아 학습 콘텐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의 최초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린 거죠."

마지막 순서로 본교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인 김현진 교수가 '상담심리 관련 주요 자격증 소개 및 준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상담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하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 2급을 비교 설명하고 자격 수여 기관, 전공 제한, 수련 기관, 주요 근무처 등을 설명했다.

또한 2017년 자격 취득 시험 일정과 SCU 임상심리사 2급 수련,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심리지도사의 주관 기관, 수행 업무, 자격 취득 후 활동 분야 등을 소개했다.

진지한 자세로 특강을 듣고 있는 200여 명의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 및 원우들

특강에 함께한 상담심리대학원 교수와 학생들

친목도 쌓고 봉사도 실천

SCU 베스트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다양한 경험도 쌓고 친목도 도모하는 우수 동아리를 소개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마라톤클럽 (서마클)

서마클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동아리다.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5km, 10km, 하프, 풀코스에 도전할 수 있다. 서울국제마라톤, 동아마라톤, 서울시민 마라톤, 보령머드 임해마라톤 등의 대회에 학교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출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달리는 코스별로 작은 기부금을 낸다. 매년 7월에는 맥주페스티벌을 열어 학우들과 친목도 다지고 모인 수익금으로 장학금이나 쌀 등을 기부하고 있다.

이현자 서마클 회장

서마클은 2016년 최우수 베스트 동아리로 선정됐고 매달 큰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서마클에서는 마라톤이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또한 이웃까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마클 동아리로 오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아사모'는 2003년부터 어르신들께 발 마사지 봉사를 실천하는 오랜 전통의 동아리다. 매월 둘째 일요일 서울시립 수락양로원 어르신들께 발 마시지 봉사를 펼치고 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며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CU 골프

2007년 8월 첫 라운딩으로 출발해 10회를 맞이한 SCU 골프는 우애와 친목 도모, 협력과 체력 단련을 위한 동아리다. 2012년부터 열리는 총동문회장배 대회를 통해 자랑스러운 서사인을 확인하고 매월 월례회를 통해 버디 장학금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에게 전달하고 있다.

기동대

'기(타로) 동(아리에서) 대(큰일하자)'를 의미하는 기동대는 2010년 결성 후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기타를 통해 화합하고 봉사 활동도 펼친다. 매월 두 번의 정기 모임, 공연과 봉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대는 계속 회원을 모집하니 기타와 봉사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란다.

민들레봉사단

서울 남부지역 학생회 공식 봉사단으로 1000여 명의 학우가 열정과 봉사 정신으로 결성한 봉사 클럽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하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다.

무지개나눔예술봉사단

합창, 무용, 연극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더불어 학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인복지전공 동아리이다.

문화예술동아리

문화 예술 관련 공연, 전시, 탐방 등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함께 문화를 향유한다. '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딧불이

2006년 경기 북부 동문 친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현재 포천에 있는 '해뜨는 집'에서 장애우들의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생일파티·청소·점심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1년에 두 번 명절 음식과 김밥·냉면·삼계탕 등의 특별식도 낸다.

SCU 볼링클럽

서울 북부지역학생회를 중심으로 볼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다. 평소 볼링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 여건이 안 됐다면 SCU 볼링클럽이 답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정기 모임 1·3주), 한영볼링센터에서 볼링도 배우고 친목도 쌓을 수 있다.

SCU 산악회

SCU 산악회는 지금까지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160번의 산행을 진행한 전통 있는 산악회다. 1년에 두 번 원정 산행으로 지방의 학우와도 함께한다.

SCU 사바리산악회

노인복지전공 동문, 학우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의정부 수락산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으며 매달 넷째 주 토·일 격월로 산행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2017년 춘계 MT 현장 스케치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모두 모여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는 4월 1~2일, 1박 2일간 양평 카나연수원으로 춘계 MT를 다녀왔다. 신편입생·재학생·졸업생 및 가족 등 45명이 참석한 이번 MT는 학우들의 화합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족상담학과

가족상담학과는 3월 24~25일, 1박 2일간 용인 휀미리리조트로 춘계 MT를 다녀왔다.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춤치료, 자기개방 체험, 7080 노래부르기 등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3월 25~26일, 1박 2일간 양재 징검다리 펜션에서 MT를 진행했다. 교수진과 학과 임원진, 신·편입생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야외활동으로 구기종목과 산책로 걷기 등을 즐기며 화합을 다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는 3월 25~26일, 1박 2일간 가평 수림타운으로 MT를 다녀왔다. MT에서는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는 '상담심리학과 전공 지원 계기와 공유', 2부는 '상담심리학과 졸업 후 진로 특강'이 주제였다.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7학년도 새 학기를 맞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입생들의 기대와 꿈을 선배들과 공유하는 MT 현장을 찾았다.

아동복지전공

아동복지전공은 3월 25일 동대문구 소울숲에서 MT를 진행했다. 20여 명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어울려 레크리에이션을 즐겼다. 참석자들은 정영애·임세희·백지희 교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친목을 도모하며 학업 의지를 다졌다.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4월 8~9일, 1박 2일간 춘천 원코리아 리조트에서 춘계 MT를 진행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빛내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한 다짐의 자리였다. 친목을 도모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빛나는 시간이었다.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는 3월 25일 포천 무봉리 청소년 수련원으로 MT를 다녀왔다. 김동환 학과장과 이재웅·김성수·성시근·인성식·김영규·이주왕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리고 이태교 석좌교수와 최병모 부동산학과 동문회장, 각 지역회장이 참석해 부동산학과의 명성을 이어 갔다.

국제무역물류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춘계 MT를 진행했다. 이번 MT에서는 전체 식사 및 게임 등이 진행됐고 자격증반별로 스터디 모임 및 자격증별 시험일정에 맞춰 자체 학습 계획 등을 수립하고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역량이 세계로 향하다

엘살바도르 교육부와 학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앞줄 왼쪽부터 엘살바도르 교육부 Jason Castro 주무관, Carlos Mauricio Canjura Linares 장관, 본교 이은주 총장, Milton A. Magana Herrera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월 27일 본교에서 엘살바도르 교육부(이하 MINED, 장관 Carlos Mauricio Canjura Linares)와 이러닝 분야에서 상호 우의와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울사이버대와 MINED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 개발 자문 △콘텐츠와 교육자료의 공유 △이러닝 전문가, 교수, 학생의 교류 △학습관리 시스템 관련 모범사례 공유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이 이번 협약을 주선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INED 양 기관은 이러닝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Canjura Linares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엘살바도르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발전과 250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동포들의 성장을 위해 이러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은 "우리 대학은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와 KOICA 사업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이러닝전문기관의 역량을 축적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아시아 지역 이상으로 확대하는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서울사이버대가 엘살바도르의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OU에는 이은주 총장, 정상원 교무처장, 박기훈 산학협력단장, 권구순 교수, 남상규 실장, Carlos Mauricio Canjura Linares 엘살바도르 교육부 장관, Milton A. Magana Herrera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손을 잡다

인천병무지청과 직무 맞춤형 교육 업무협약 체결

이은주 총장과 김대년 인천병무지청장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인천병무지청은 지난 3월 29일 본교 대강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본교 이은주 총장과 김대년 인천병무지청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빠르게 변하는 병무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수 인력 획득 및 양성, 직무보수교육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은주 총장은 "우리 대학은 학생의 15% 정도가 군경에 근무하는 군경 친화 대학"이라며 "평생교육과 자기계발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번 MOU는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년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급변하는 환경에 놓인 병무청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에 앞장서는 인재를 배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직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고 인천병무청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양성된 우수 인력이 관련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상담활동을 주도하다

서울 강북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 업무협약 체결

이은주 총장과 강북경찰서 한원호 서장 외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월 16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상담 인력을 보충하는 등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담 업무에 협조하기 위해 요일별 상담사를 배치해 운영한다. 상담 업무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봉사 활동으로 이뤄지며, 피해자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실습의 기회를 갖고 강북경찰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근무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교 이은주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능 나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은주 총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 외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5월 25일 본교 B동 105호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은주 총장을 비롯해 김현아 입학처 부처장, 김미주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상원 교무처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최영현 원장, 안인환 보건산업교육본부 본부장, 권경섭 제약의료기기화장품교육부 부장, 전기태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복지 관련 학과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고, 개발원은 소속 직원과 교육 회원에게 자기 계발 및 실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교육기획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원 임직원 및 교육수료자가 입학할 경우 장학혜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은주 총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만큼 이번 협력이 교육생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포상제와 '고마워Yo'
청소년 행복 캠페인을 위한 협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은주 총장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이사장 외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13일 본교 B동 105호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포상제 및 '고마워Yo' 청소년 행복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본교 이은주 총장과 전호진 입학처장, 정상원 교무처장, 이문숙 교수, 박형원 교수, 김윤나 교수와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현수 본부장, 김용대 부장 등이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진흥과 청소년계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다. 청소년포상제는 9~24세의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 행복 캠페인 '고마워Yo'를 통해 '감사 나눔'을 실천하고, 학교폭력 및 언어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인성 함양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은주 총장과 신은경 이사장은 "청소년포상제 등 자기 주도적인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행복 캠페인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수동정

이문숙 교수

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교사실습생 선호도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는 5월 12~13일 진행된 한국콘텐츠학회 2017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실습생으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윤나 교수

탈북여성의 문화적응 기제 관련 논문 게재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는 4월 30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에 「출신성분에 따른 탈북여성의 문화적응 기제에 관한 비교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정상원 교수

사회복지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정상원 교수는 2월 7~9일에 진행된 *Asia-Pacific Conference on Education, Society and Psychology*에서 "The Impact of the Sources of Job Stress for Social Workers on Contextual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Social Workers in the Non-profit Sector and Social Workers in the Public Sector"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3월 30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에 「이상주의와 개인-조직적합성이 사회복지사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의 윤리경영인식의 조절효과」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4월 21~22일 진행된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기독교인의 영성적 나눔 교육경험과 사회복지활동 참여에 대한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임세희 교수

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사업 영향 요인 발표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4월 28일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에서 주관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사업 영향 요인」을 발표했다. 5월 26일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거빈곤 유형별 가구특성 비교」를 발표했다.

이우경 교수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4월 3일 *Asian Journal of Psychiatry*에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Impulsivity, Anxiety, and Skin Picking Behavior"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한수미 교수

온라인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동기부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3월 9일 발간된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에 "Effects of Motivation, Academic Stress and Age in Predict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Focused on Online College Students"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지연 교수

학생 디지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사 수용도 및 영향 요인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4월 20일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17권 2호에 「학교 장면에서 디지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사의 수용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교수동정

김동환 교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부동산중개업 경영난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4월 30일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5권 1호(통권 제44호)에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이 부동산중개업 경영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2017년 부동산경제TV(RTN)에 전문해설위원(경제와이드 생방송 뉴스)으로 위촉됐다.

고윤승 교수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와 활용 방안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는 1월 31일 『한국과학예술포럼』에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와 그 활용 방안-블록체인기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2016년 11월 4일 한국기업경영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프로틴경력, 성격(Big5)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박병석 교수

20세기 말 중국 신좌파 중화성 담론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3월 30일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6권 1호에 「20세기 말 중국 신좌파 중화성(中華性) 담론의 전개, 의의 및 비평」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오창환 교수

저서 『창의』 출간

컴퓨터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3월 13일에 『창의』라는 저서를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출간했다.

이향아 교수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작품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가 참가한 'Nottingham Trent University 초청 국제심포지엄 및 초대전'에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작품을 전시했다. 또한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가 주관한 'Culture, Design, and Technology'에서 〈High Culture〉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이의신 교수

공연예술산업을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논문 게재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를 공동집필하였고, 3월 30일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8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연예술산업을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2017년 한국문화경제학회 총무 협력 이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윤소영 교수

경기 마이스터 콘서트에서 협주

음악학과 윤소영 교수는 5월 1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 마이스터 콘서트에 참가했다. 위솔로이스츠 단장으로 무대에 오른 윤 교수는 '멘델스존 피아노6중주 D장조 Op.110'을 연주했다.

권구순 교수

한국군의 UN평화활동에 대한 성과기반 관련 논문 게재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3월 31일 『국제지역연구』에 「한국군의 UN평화활동에 대한 성과기반 평가모델 개발과 적용」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서울사이버대, 아시아 최초 차이콥스키 동상 건립

아시아 최초로 러시아 정부의 인증을 받아 건립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정의 차이콥스키 동상

5월 27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서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 청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본관 앞에 세워진 높이 2.3m의 동상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앞에 있는 동상을 재현한 것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러시아 최고의 조각가로 추앙받는 베라 이그나티에브나 무히나(Вера Игнатьевна Мухина, 1889~1953)가 조각한 차이콥스키 동상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동상 제막식에는 알렉산드르 티모닌(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주한 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등이 참석했다.

차이콥스키 동상 제막식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설립 당시 캠퍼스에 500석 규모의 차이콥스키 홀을 갖추고 로저스-콘솔리 겸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다. 또한 2015년에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 및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수상자 협회와의 원격 레슨 관련 MOU를 체결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차이콥스키 동상을 세운 것은 러시아와 신일학원의 2대에 걸친 인연에서 비롯됐다. 이세웅 명예이사장은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러시아 문화를 국내에 알리고자 꾸준히 노력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 정부 훈장을 두 차례 받았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도 현재 한러문화예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은주 총장은 동상 건립을 위해 2014년부터 러시아를 수차례 오가며 베라 이그나티에브나 무히나의 유족과 러시아 지방·연방정부를 만나 설득했다. 처음에는 원본의 고유성이 훼손된다며 거절했던 러시아 측도 꾸준한 설득 끝에 결국 동상 건립을 승인했다. 동상 제작비용은 이상균 이사장이 사비로 전액 부담했다.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차이콥스키 동상을 세운 사례는 아시아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처음이다. 이은주 총장은 "러시아는 차이콥스키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낳은 문화 강국이다.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인제 군부대 방문

2월 21일 육군 제3군단 사령부에서 진행된 '돈키호테' 공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1일(화) 오후 2시에 육군 제3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발레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장병·군무원·군가족을 대상으로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발레화한 〈돈키호테〉를 선보였다. 허묘연 前 총장과 군교육지원처 이정원 처장(군경상담학과 교수), 구국모 대외협력처장, 군교육지원센터 김성철 부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돈키호테〉 공연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군장병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국내 유일무이한 군친화대학으로서 군부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비 신입생 초청 '원라인' 시사회

왕십리 CGV에서 진행된 영화 '원라인' 시사회

3월 27일 왕십리 CGV에서 영화 '원라인' 시사회가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씨네21'이 함께 진행했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예비 신입생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영화 시사회, 뮤지컬 관람, 미술관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 독서클럽 운영

소통, 토론, 참여를 바탕으로 월1회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통찰력 있는 인간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독서클럽을 운영한다. 매월 첫 주 또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잊혀진 질문'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선정해 토론할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는 연극·영화 관람, 역사 탐방 등 문화 활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인문 소양 함양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제10회 부동산학과 체육대회

제10회 부동산학과 체육대회에 참가한 교수들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

4월 22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운동장에서 부동산학과 체육대회가 열렸다. 본교 학과 중 유일하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동산학과는 특히 올해 10회를 맞아 더 큰 의미를 지녔다. 정오동 총동문회장, 최병모 부동산학과 동문회장, 손갑주 부동산학과 학생회장 등을 비롯한 졸업생과 재학생·교수·가족 등 140여 명이 참여해 전통 깊은 행사를 더욱 빛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체육대회는 족구·피구·축구·계주·줄다리기 등의 팀별 경기와 양궁·제기차기·신발던지기·투호·OX퀴즈 등의 개인별 경기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동문과 재학생이 한 팀을 이뤄 치러진 팀 경기는 그야말로 치열한 승부의 장이었다. 동문들은 찰떡궁합 호흡을 자랑하며, 우승을 향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벌였다. 행운권 추첨은 체육대회의 또 다른 묘미였다. 경기 중간마다 이뤄진 행운권 추첨에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바람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55인치 대형 TV와 강원도 글램핑 숙박권을 비롯한 30개의 경품이 주어져 당첨자들에게 기쁨을 안겼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면 수업

서울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전공은 4월 15일 본교 A동 5층 강의실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백지희 교수가 진행한 이번 수업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2017년부터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대면 교과목을 지정해 발표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대면 교과목 중 본교에서 진행하는 출석 수업(8시간)과 1회의 출석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한 가지라도 완수하지 못했다면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이수 과목 포기'를 신청한 후 재수강해 인정받아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 강의는 1학기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아동 권리와 복지, 언어 지도, 보육 교사론 4과목과 2학기 아동생활 지도, 놀이지도, 아동 미술, 아동 수학 지도 4과목으로 진행된다.

본교 A동 5층 강의실에서 진행된 아동복지전공 백지희 교수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대면 수업

대면 시험은 중간고사가 시행되는 주의 토요일에 출석해 오프라인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학기마다 열리는 4과목 중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

'무역물류아카데미' 개강

무역물류아카데미에 참가한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진, 재학생 및 동문들

국제무역물류학과는 재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무역물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실무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무역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이 강의는 학과 구성원들 간의 실무 관련 정보 교류와 전문가 초청 실무 중심의 특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과 재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월 11일 1차를 시작으로 올해는 총 4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레이트 포워더 실무 및 사례',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실무' 등의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는 실무 전문가의 특강으로 이뤄져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행정학과 보건교육 현장실습 실시

보건행정학과 현장학습

보건행정학과는 보건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

실습생들은 5일에 걸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첫 날에는 주요 부서 업무 및 교육 실습 계획 설명, 각 파트별 안내 등을, 둘째 날에는 결과상담실 문진 안내, 의무기록실 업무 교육 및 실습이 이뤄졌다. 셋째 날에는 내시경실 안내 및 혈압 측정, 건강생활실천상담실 교육 및 실습이, 넷째 날에는 보건교육 리허설 및 홍보 활동 교육, 보건교육 캠페인 현장 체험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예비보건의료인으로서 현장체험 소감 및 보건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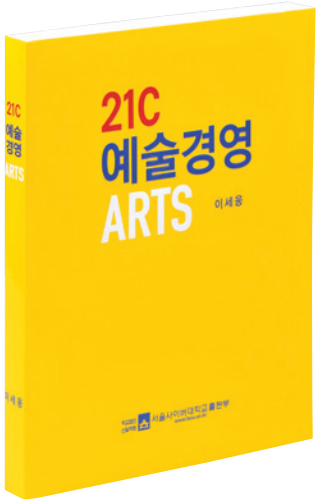
경남지역 특강 진행

진주 경남가족상담교육원에서 진행된 자기 브랜드 관리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29일 진주 경남가족상담교육원에서 '인지심리학-경영학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관리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 유도 및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특강은 경영학과 전광호 학과장이 참석했고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간 안내

21C 예술경영 ARTS



21C 예술경영 ARTS
이세웅 저,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23,000원

판매서점
- 오프라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 온라인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기업 CEO이자 경영학자 그리고 예술의전당 이사장과 국립발레단 이사장을 역임한 저자가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현장에 대한 오랜 통찰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제시하는 예술경영론!
이 책은 예술경영의 역사와 비전을 명쾌하게 정의하여 학문으로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과 사례, 개념과 실무를 생생하게 분석, 접목한 통합형 예술경영 입문서이다. 특히 경영분야와 예술분야의 이론을 망라하여 예술경영의 독자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술시장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획, 조직 및 인력, 마케팅 및 홍보, 관객개발, 재원조성의 원리와 방법론 등 예술경영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며 21세기 예술경영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마인드를 개관한 이 책은 입문자에게는 예술경영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문서이며, 격변하는 예술경영 현장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종합적인 안내서이다.

목차

1 **예술경영이란?** 예술경영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
2 **예술조직 경영** 예술경영에서의 조직 / 예술조직의 유형 / 예술조직의 구조 결정 / 예술경영인
3 **극장경영** 극장경영의 개념 / 극장의 인력 관리와 관객 / 대관 및 유통 / 멤버십 제도와 후원회 / 관객 서비스 및 부대시설 / 로비 / 공연장 홈페이지
4 **축제경영** 축제의 개념 / 공연예술축제 / 축제 조직과 운영 / 세계의 주요 공연예술축제
5 **예술 마케팅 I** 예술상품 소비자는 누구인가 / 예술상품 소비자
6 **예술 마케팅 II** 고객 분석 / 마케팅 믹스
7 **예술과 지원** 예술 지원의 원천 /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 메세나 / 문화 마케팅
8 **21세기 예술경영** 21세기 예술경영이란

저자소개

이 세 웅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Air Products Korea, Inc. 대표이사 사장, 한국유리공업(주) 대표이사 회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국민은행 사외이사, EU 및 북미주지역 수출 진흥 사절단 단장을 역임하였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및 국립발레단 이사장을 역임, 현재 양 기관의 명예이사장으로 있으며, 대통령직속교육개혁심의회 위원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 미국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RISD) 이사 / 종신명예이사, 러시아 Moscow Conservatory(P.I. Tchaikovsky Conservatory) 재단이사로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몽블랑문화예술후원자상(Mont blanc de la Culture Arts Patronage Award)을 받았다.
저서로는 『국제경영론』, 『글로벌 경영과 전략』, 『Color of Thoughts』 및 『21C 예술경영』이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를 만나 보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 모바일 강의수강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 학생 맞춤형 1년 4학기제로 졸업은 빠르게
-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으로 취업은 가깝게
- 사이버대학 최대 교내장학금으로 든든하게

(국가장학금 외, 2016공시기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중 ☎ 02-944-5500

서울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중 ☎ 02-944-5000

정가 : 5,000원

사회복지학부	심리·상담학부	사회과학학부	경상학부	IT·디자인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노인복지전공	가족상담학과	법무행정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음악학과[피아노전공]
복지시설경영전공	군경상담학과	보건행정학과	금융보험학과	콘텐츠기획·제작학과	
아동복지전공	**특수치료학과**(신설)		세무회계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신설)	**자유전공학부[신설]**
청소년복지전공				**정보보호학과**(신설)	**자유전공**(신설)